

한문단어의 기본기능과 림시기능에 대한 이해

려 동 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한문교육방법도 연구하며 한문의 고유한 언어적규범도 연구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단어의 기능이란 문장속에서 일정한 문장론적연계를 맺고있는 문장구성단위의 하나인 단어가 수행하는 문장론적역할을 말한다.

명사에 속한 단어는 문장속에서 주어나 보어의 기능을, 동사에 속한 단어는 술어의 기능을, 형용사는 규정어, 술어의 기능을, 부사는 상황어의 기능을 수행하는 역할이 단어의 문장론적기능이다.

례: 家甚貧.(집이 몹시 가난하다.)

家于金海.(김해에서 살았다.)

첫째 문장의 단어 家는 《집》이라는 사전적인 뜻을 가진 명사로서 주어의 문장론적기능을 수행하였다면 둘째 문장의 단어 家는 《살다》라는 전의된 뜻을 가진 동사로서 술어의 문장론적기능을 수행하였다.

이로부터 같은 한자, 같은 단음절단어인 家가 한 문장에서는 주어의 기능을, 다른 문장에서는 술어의 기능을 수행하는 현상을 어떻게 설명하여야 하며 《집》과 《살다》가 다 사전에 올라있는 뜻이라고 하여 다품사적현상으로부터 설명하겠는가 하는 문제가 나선다.

례: 自此日執師弟之誼.(이날부터 사제간의 정을 맺었다.)

學士皆師尊之.(학사들이 다 그를 스승처럼 존대하였다.)

첫째 문장에 쓰인 단어 師는 《스승》이라는 사전적인 뜻을 가진 명사로서 규정어의 문장론적기능을 수행하였다면 둘째 문장의 단어 師는 《스승처럼》이라는 사전적인 뜻도 없이 부사처럼 쓰이면서 상황어의 문장론적기능을 수행하였다.

일반적으로 한자 家자는 흔히 《집》이라는 뜻을 가진 명사로 간주되며 《살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로 보기는 힘들다. 그리고 한자 師자는 《스승》이라는 뜻을 가진 명사로 간주되며 그것을 《스승처럼》이라는 뜻을 가진 부사로 보지 않는다. 그것은 한문의 한자는 기본뜻이 있으며 그에 따라 정해진 품사가 있기 때문이다.

실례로 人, 馬, 龍, 山, 耳, 士, 兒 등은 그의 기본뜻에 따라 그것을 명사라고 하며 笑, 乞, 帝, 歸, 來, 去 등은 그의 기본뜻에 따라 그것을 동사라고 하며 溫, 高, 麗, 貧, 貴, 賤 등은 그의 기본뜻에 따라 형용사라고 하며 最, 尤, 皆, 悉, 咸, 但, 獨 등은 그의 기본뜻에 따라 부사라고 한다.

한문의 한자, 단어는 기본뜻으로부터 나온 전의된 뜻도 가지고있는것으로 하여 다의성을 가진다.

실례로 《새옥편》에서 한자 家자의 해석을 보면 기본뜻이 《집》이며 그로부터 전의된 《살다》, 《안해》, 《남편》이라는 뜻이 있다. 이 4가지 뜻을 품사적으로 구분하면 《집》, 《안해》, 《남편》은 명사이며 《살다》는 동사이다. 師자에 대한 해석을 보면 기본뜻이 《스승》이며 그로부터 전의된 《군사》, 《사단》, 《본받다》, 《어느 한 부분에서 일정한 기술이나 자격을 가진 사람》, 《관직의 명칭》, 《무리, 대중》, 《관광》, 《우두머리》라는 뜻이 있다. 이 8가지 뜻을 품사적으로 구분하면 《본받다》는 동사이며 그 나머지는 명사이다.

여기서 중요한것은 한자, 단어가 다의성을 가지지만 기본뜻에서 전의된 뜻이 문장속에서 아무렇게나 맹목적으로 무질서하게 표현되는것이 아니라 일정한 문법적조건의 조성파 일정한 문법적수단에 의하여 규칙적으로 표현된다는것이다. 실례로 家淸城家側

의 문장에서 단어 家는 단어결합 淸城家側과 술보관계를 맺고 《청성집결에서 살았다.》는 내용을 가진다. 즉 단어 家가 문장속에서 《살다》라는 뜻으로 쓰이자면 반드시 자기뒤에 보어라는 문법적수단이 놓인다는 문법적조건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같이 다의적뜻을 가진 한자가 기본 뜻외에 전의된 뜻으로 쓰이자면 일정한 문법적조건이 조성되어야 한다.

한문단어가 기본뜻을 가지고 문장속에서 수행하는 문장론적기능을 기본기능, 전의된 뜻을 가지고 문장안에서 수행하는 문장론적기능을 립시기능이라고 한다.

한문단어가 문장속에서 수행하는 기본기능이란 기본뜻에 의하여 갈라진 일정한 품사에 속한 단어들이 문장속에서 수행하는 문장론적역할을 말한다.

한문의 단어는 그의 기본뜻에 따라 명사, 수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등 여러 개의 품사로 갈라지며 갈라진 매개 품사들은 문장속에서 자기에게 고유한 문장론적기능을 가진다.

명사는 문장속에서 주어, 술어, 보어, 규정어, 상황어 등의 모든 문장론적기능을 다 맡아 수행하지 않고 주로 주어, 보어의 문장론적기능을 수행하는것이 기본이며 경우에 따라 규정어의 기능, 판단문에서 술어의 기능을 수행하지만 그자체가 동사술어나 상황어의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다.

동사는 문장속에서 술어의 기능을 수행하는것이 기본이며 경우에 따라 규정어의 기능을 수행하지만 그자체가 주어나 보어, 상황어의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다. 형용사는 문장속에서 규정어, 술어의 기능을 수행하는것이 기본이며 그자체가 주어나 보어, 상황어의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다.

부사는 문장속에서 상황어의 기능을 수행하는것이 기본이다.

이처럼 기본뜻에 따라 일정한 품사에 속한 단어들이 문장속에서 담당수행하는 문장

론적기능을 기본기능이라고 한다.

례: 賊潛出北門掩軍後. (적들이 몰래 북쪽문으로 나온 아군의 뒤를 엄습하려고 하였다.)

朴犀竹州人. (박서는 죽주사람이다.)

실례의 단어 賊, 北門, 軍, 後, 朴犀, 竹州人은 기본뜻에 따르는 명사로서 문장속에서 주어, 규정어, 보어, 명사술어의 문장론적기능을 수행하였다. 이것이 명사로서 우의 한자, 단어들이 가지는 기본기능이다.

례: 逢往來商船則奪其物而殺其人. (오고 가는 장사배들을 만나면 그들의 물건을 빼앗고 그 사람들을 죽이였다.)

실례의 단어 逢, 往來는 기본뜻에 따르면 동사이지만 문장속에서 술어, 규정어의 문장론적기능을 수행하였다. 이것이 동사로서 우의 한자, 단어들이 가지는 기본기능이다.

례: 事舅姑甚恭. (시부모를 섬기는것이 매우 공손하였다.)

黑焰騰空. (검은 연기가 공중으로 솟구쳐올랐다.)

실례의 恭, 黑은 기본뜻에 따라 형용사이지만 문장속에서 술어, 규정어의 문장론적기능을 수행하였다. 이것이 형용사로서 우의 한자, 단어들이 가지는 기본기능이다.

례: 大者二中者一小者一. (큰것이 두개요, 가운데것이 하나요, 작은것이 하나다.)

海中一島. (바다가운데 하나의 섬이 있다.)

실례의 一, 二는 기본뜻에 따르면 수사이지만 문장속에서 술어, 규정어의 기능을 수행하였다. 이것이 수사로서 우의 한자, 단어들이 가지는 기본기능이다.

이와 같이 한문단어가 문장속에서 수행하는 기본기능은 기본뜻에 따르는 품사로서 수행하는 문장론적기능이다.

한문단어의 기본기능에서는 품사의 성격이 달라지지 않는다.

한문단어가 문장속에서 수행하는 립시기

능이란 전의된 뜻을 가지고 문장속에서 수행하는 문장론적기능을 말한다. 다시말하여 서로 다른 언어환경과 문장속에서 일정한 문법적수단의 작용에 의하여 일정한 품사에 속한 단어가 립시 전의된 뜻이나 품사전성된 뜻을 가지고 해당한 문장론적역할을 수행하는 기능을 립시기능이라고 한다.

한문단어의 립시적기능은 일정한 문법적조건이 성숙되어야 이루어진다.

한문단어의 립시적기능이 이루어지는 문법적조건을 몇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볼수 있다.

첫째로, 명사뒤에 보어의 기능을 수행하는 명사, 대명사가 놓이는 문법적조건에서 보어앞에 놓인 명사는 전의된 뜻을 가지거나 품사가 바뀌어 립시 동사의 문장론적기능을 수행한다.

이 경우 두 측면에서 나누어 볼수 있다.

우선 보어의 앞에 놓인 명사가 전의된 뜻을 가지고 립시 동사술어로 쓰이는것이다.

한문문장에서 단어들의 결합관계를 보면 동사술어는 자기뒤에 놓인 명사와만 술보관계를 맺는다.

례: 婦衣素衣 與一奚之金生之隣. (머느리는 흰 옷을 입고 한명의 녀종과 함께 김생의 이웃으로 갔다.)

不圖吾子之明達至於此也. (그대의 총명이 여기에까지 도달할줄은 헤아리지 못하였다.)

명사 衣은 뒤에 보어 素衣가 놓인 문법적조건에서 《입다》라는 전의된 뜻을 가지고 립시 동사술어의 기능을 수행하였으며 명사 圖도 뒤에 보어구 吾子之明達至於此가 놓인 문법적조건에서 《헤아리다》라는 전의된 뜻을 가지고 립시 동사술어의 기능을 수행하였다.

또한 보어의 앞에 놓인 명사, 자동사, 타동사, 형용사들이 전의된 뜻이 아니라 품사전성되어 이루어진 사동, 의동의 동사적뜻을 가지고 립시 동사술어로 쓰이는것이다.

례: 魏置相相田文. (위나라에서 재상제도를 두고 전문에게 재상을 하게 하였다.)
城中軍突出擊走之. (성안의 군사들이 돌격하여나와 공격하여 놈들을 달아나게 하였다.)

舟中人曰彼有酒以飲榜人,...(배안의 사람이 말하기를 《저 배에는 술이 있어 배사공들에게 마시게 하였다.》...)

吾始與汝等入此島先富之. (내가 처음에 너희들과 함께 이 섬에 들어와 먼저 너희들이 부유하게 살게 해주려고 하였다.)

실례에서는 명사 相, 자동사 走, 타동사 飲, 형용사 富의 뒤에 보어가 놓인것으로 하여 《...하게 하다》는 사동의 뜻을 가진 동사술어의 기능을 수행하였다.

례: 孟嘗君 客我. (맹상군은 나를 손님으로 여기었다.)

夫家一門重之. (남편집의 온 가문이 그를 중하게 여기었다.)

실례에서는 명사 客, 형용사 重의 위치에 보어가 놓인것으로 하여 《...여기다》라는 의동의 뜻을 가진 동사술어의 기능을 수행하였다.

둘째로, 명사뒤에 술어의 기능을 수행하는 동사, 형용사가 놓이는 문법적조건에서 술어앞에 놓인 명사는 전의된 뜻이 아니라 품사가 바뀌어 이루어진 부사적인 뜻을 가지고 상황어의 문장론적기능을 수행한다.

한문문장에서 단어들의 결합관계를 보면 상황어는 자기뒤에 놓인 술어와 상술관계를 가지는것이 특징이다.

한문에서는 단어들의 상술관계의 특성을 리용하여 명사를 술어의 앞에 놓음으로써 전의된 뜻이 아니라 품사가 바뀌어 이루어진 부사적인 뜻을 가지고 상황어의 문장론적기능을 수행하기도 한다.

례: 鐵片星碎. (철편이 별처럼 부서졌다.)
馬日肥且壯. (말은 날마다 살찌고 건장하였다.)

家貧歲食郡. (집이 가난하여 해마다 고을의 환자쌀을 먹었다.)

실례의 명사 星, 日, 歲는 자기뒤에 술어가 놓인것으로 하여 품사가 바뀌어 이루어진 《별처럼》, 《날마다》, 《해마다》라는 부사적인 뜻을 가지고 상황어의 기능을 수행하였다.

셋째로, 일련의 명사, 수사는 자기앞에 가능성을 나타내는 보조동사가 놓이는 문법적 조건에서 품사가 바뀌어 동사적인 뜻을 가지고 술어의 기능을 수행한다.

한문에서 가능성을 나타내는 보조동사들은 바로 뒤에 놓인 동사와 결합되어 쓰이는 특성이 있다. 한문에서는 이러한 특성을 리용하여 명사나 수사를 가능성을 나타내는 보조동사의 뒤에 놓음으로써 품사가 바뀌어 명사나 수사가 동사적인 뜻을 가지고 술어의 기능을 수행한다.

례: 土攘膏腴宜五穀可都也. (토양이 비옥하여 오탁을 심는데 적합하니 도읍을 정할수 있다.)

聲音各異豈可一哉. (소리가 각이하니 어찌 하나로 될수 있겠는가?)

실례의 명사 都와 수사 一의 앞에 가능성을 나타내는 보조동사가 놓인것으로 하여 품사가 바뀌어 이루어진 《도읍하다》, 《하나로 되다》는 동사적인 뜻을 가지고 술어의 기능을 수행하였다.

넷째로, 동사, 형용사가 주어나 보어의 자리에 놓이면 품사가 바뀌어 의미가 대상화된 명사적단어로 쓰이면서 주어나 보어의 문장론적기능을 수행한다.

한문에서 일정한 문장론적관계를 맺는 문장성분의 자리는 고정되어있다. 한문에서는 이러한 특성을 리용하여 동사, 형용사가 주어나 보어의 기능을 수행하게 한다.

례: 知與不知咸曰鄭壽銅也. (그를 아는 사람들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다 《정수동》이라고 하였다.)

高十九尺. (높이가 십구척이다.)

실례의 동사 知와 단어결합 不知, 형용사 高는 다 주어의 자리에 놓이였다. 이런 문법적조건에서 동사, 형용사들은 품사가 바뀌어 대상적의미를 나타내는 명사로서 주어의 기능을 수행하였다.

례: 先生之恩 生死而肉骨也. (선생의 은혜는 죽은 사람을 살려낼수 있고 마른 뼈에도 살이 살아나게 할수 있다.)

許生登高而望. (허생이 높은 곳에 올라가 바라보았다.)

실례의 동사 死, 형용사 高는 다같이 보어의 자리에 놓임으로써 품사가 바뀌어 대상적인 이름을 나타내는 명사로서 보어의 기능을 수행하였다.

다섯째로, 한문의 일부 형용사들은 자기뒤에 술어의 기능을 수행하는 단어가 놓이는 문법적조건에서 품사가 바뀌어 부사적인 뜻을 가지고 상황어의 기능을 수행한다.

한문의 부사는 언제나 자기뒤에 놓인 술어와 상술관계를 가진다. 한문은 이러한 특성을 리용하여 형용사가 부사적인 뜻을 가진 상황어의 기능을 수행하게 한다.

례: 厥數大縮. (그 수량이 크게 줄어들었다.)

家極貧. (집이 몹시 가난하였다.)

실례의 형용사 大와 極은 다같이 술어의 앞에 놓인것으로 하여 《크게》, 《극히, 몹시》라는 부사적인 뜻을 가지고 상황어의 기능을 수행하였다.

이외에도 匍匐而入白曰,...(무릎걸음으로 기여들어가 여쭙어 말하기를...)의 문장에서 형용사 白은 동사술어의 자리에 놓임으로써 품사가 바뀌어 《아뢰다》, 《여쭙다》는 뜻을 가진 동사술어의 기능을 수행하였다.

한문단어의 기본기능과 립시기능문제는 이밖에도 여러 품사들에 걸쳐 논의하고 연구될수 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연구를 심화시켜 보다 과학적인 교육방법을 확립해나가야 할것이다.